

# 타임머신/시간여행 모티브 드라마에 나타난 자기 계발 이데올로기

- 텔레비전 드라마 <미래의 선택>을 중심으로

박명진\*

## <차례>

1. 머리말
2. 실패한 판타지로서의 시간여행 모티브
3. 멜로드라마 서사와 인생 성장담
4. 개인의 선택과 자기계발 프로젝트
5. 맺음말

## <국문초록>

2012~2013 시기는 타임슬립을 통한 시간여행 드라마들이 집중적으로 방영되었던 시기이다. <미래의 선택>은 타임머신 시간여행과 평행우주를 적용한 드라마로서 이 시기의 타임슬립 드라마들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래의 선택>은 타임슬립을 이용한 시간여행의 판타지 양식을 표방하고 있는 드라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시간여행의 판타지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 드라마가 타임머신 모티브를 지극히 허술하고 작위적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로 온 시간여행자가 서사의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현재의 네 젊은이들의 복잡한 애정 관계와 여주인공의 성장담이 전면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선택>은 여주인공 나미래(윤은혜 분)의 자기 주도적인 선택과 노력과 성공의 서사를 전경화하게 된다. 이러한 서사는 여주인공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여성 주체로 구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서사가 내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의 자기 주도적인 성공 스토리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 형성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자기 계발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미래의 선택>은 시간여행 모티브를 활용한 판타지 장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간여행이라는 판타지 도구들을 벗기고 나면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드라마로 귀결된다.

주제어 : <미래의 선택>, 성장담, 시간여행, 신자유주의, 자기 계발 이데올로기, 자조(自助), 타임머신, 판타지, 평행우주

## 1. 머리말

2012년부터 2013년 전반기는 한국의 TV 드라마의 지형도에서 소위 타임슬립(Time Slip) 형태의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였던 시기로 기억할 만하다. <프로포즈 대작전>,<sup>1)</sup> <옥탑방 왕세자>,<sup>2)</sup> <인현왕후의 남자>,<sup>3)</sup> <닥터 진>,<sup>4)</sup> <신의>,<sup>5)</sup> <나인><sup>6)</sup> 등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타임슬립 드라마들이다. 이처럼 타임슬립 드라마들이 일종의 트렌드로 선보이던 시기에 <미래의 선택>은 다른 종류의 시간여행 모티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래의 선택>은 이 시기 대부분의 시간여행류 드라마들과는 달리 타임머신(Time Machine)이라는 과학 기계를 이용하여 시간을 여행한다는 방식을 채택하고, 여기에 ‘평행우주(Parallel Universes)’<sup>8)</sup> 이론을 접합함으로써 기존의 타임슬립 드라마와는 차별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미래의 선택>이 타임슬립 모티브의 시간여행 드라마들과는 다른 효과를 생산해 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1895년에 발표된 웰스(Herbert George Wells)의 소설 <타임머신(The Time Machine)> 이후 “과학소설과 SF 콘텐츠에 깊은 방향을 불러일으켜 무수한

1) 윤지련 극본, 김우선 연출, TV조선, 총 16부작, 2012.2.8~2012.3.29.  
 2) 이희명 극본, 신윤섭·안길호 연출, SBS, 총 20부작, 2012.3.21~2012.5.24.  
 3) 송재정·김윤주 극본, 김병수 연출, tvN, 총 16부작, 2012.4.18~2012.6.7.  
 4) 한지훈·전현진 극본, 한희·오현중 연출, MBC, 총 22부작, 2012.5.26~2012.8.12.  
 5) 송지나 극본, 김종학·신용휘 연출, SBS, 총 24부작, 2012.8.13~2012.10.30.  
 6) 송재정·김윤주 극본, 김병수 연출, tvN, 총 20부작, 2013.3.11~2013.5.14.  
 7) 홍진아 극본, 유중선 연출, KBS2, 총 16부작, 2013.10.14~2013.12.3.  
 8) ‘평행우주(平行宇宙)’ 이론은 ‘다중우주(多重宇宙; Multiverse)’ 이론의 하위범주이다.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아류작들을 양산해냈고 시간여행 장르라는 SF 하위 장르<sup>9)</sup>가 양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SF 소설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다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 모티브를 전격적으로 차용하게 됨으로써 시간여행 영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시간여행을 다룬 작품이 소설보다 영화에서 급증한 것은 분명 영화가 가지는 시각적 특성에서 비롯<sup>10)</sup>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TV 드라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와 TV를 포함한 영상 매체 예술들은 매체의 특성상 특수효과나 편집 효과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쉽기 때문이다.

대체로 시간여행을 이용한 판타지 양식은 현실에 대한 불안, 공포, 불만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sup>11)</sup> 그러나 <미래의 선택>의 경우, 미래(未來)에서 현재로 시간여행을 온 도래자(渡來者)가 아무리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도 정작 도래자(渡來者) 자신의 인생을 전혀 바꿀 수 없다. 그 이유는 도래자(渡來者)가 대면한 과거의 자기 자신은 다른 세계, 즉 다중우주 속의 두 세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래자(渡來者)와 과거의 자기 자신 사이에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현실을 개조시킬 수 없다면 이 드라마는 시간여행 모티브의 이야기들이 선사하는 현실 바꾸기의 판타지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시간여행을 통한 특정 주체의 변화를 도외

시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비록 미래A가 외부적 도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내지만 그녀가 그렇게 변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시간여행을 온 미래B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미래의 선택>은 타임머신 시간여행이라는 판타지양식을 통해 미래A의 ‘인간 개조’ 성공담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디어 문화의 제작물들은 순수한 오락물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 투쟁, 의제 그리고 정책에 속박되어 있는 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산물<sup>13)</sup>이고, 시청자가 텔레비전을 대할 때 “순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데올로기적 틀에 직면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독하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일정한 태도를 교섭<sup>14)</sup>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미래의 선택>이 발생시키는 정치성과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TV를 포함한 미디어 매체는 “생명체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 지도, 규정, 차단, 주조, 제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sup>15)</sup>을 관장하는 ‘장치(dispositif)’로 기능하게 된다. <미래의 선택>에서 시간여행과 평행우주라는 판타지 모티브는 이 ‘장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시키는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래의 선택>은 타임머신/시간여행 모티브를 활용하는 판타지 드라

9) 고장원, 『SF로 광고도 만드나요?』, 들녘, 2003, 124면.

10) 최영진·김민중, 『시간여행 영화의 비선형적 사유 : <도니 다코>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문학과 영상학회, 2010 겨울, 849면.

11) “대부분의 시간여행은 과거로의 여행이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회환이 없지만, 과거에는 회환이 깊기 때문이다. 자신의 과거의 사건을 바로잡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바로 시간여행을 꿈꾸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간여행’은 단순히 과거와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 아니라, 주인공의 시간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과거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주인공의 ‘의지’ 및 ‘욕망’ 문제를 제기하며 인생관, 세계관과 닿아 있다.” 서곡숙, 『시간여행 영화의 쾌락-시간, 죽음,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영상예술연구』 제18호, 영상예술학회, 2011, 89면.

12) 드라마의 주인공인 ‘나미래’(윤은혜 분)를 미래A로, 미래에서 온 늙은 ‘나미래’(최명길)를 미래B로 표기하겠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미래와 미래(未來)로부터 온 나미래는 평행우주 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에 속하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미래가 살고 있는 곳이 세계A라 한다면, 미래에서 온 나미래가 살고 있는 곳은 그와는 전혀 다른 세계B가 될 터이다. 결국 <미래의 선택>은 세계B에 살던 늙은 미래B가 세계A에 살고 있는 미래A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와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3) 더글라스 켈너, 김수정·정종희 옮김, 『미디어 문화』, 새물결, 1997, 173면.

14) 존 피스크·존 하틀리, 이익성·이은호 옮김, 『TV 읽기』, 현대미술사, 1997, 23면.

15)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옮김, 『장치란 무엇인가?』, 조르조 아감벤·양창렬,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도서출판 난장, 2010, 33면.

마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판타지 드라마로서 체감되지 않는다. 이 글은 <미래의 선택>이 시간여행의 판타지 드라마 장르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왜 판타지의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 원인과 그 결과로서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시간여행을 모티브로 활용하는 판타지 양식의 특징과 <미래의 선택>에 나타난 시간여행 모티브가 성공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양상을 살펴본 후, 시간여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멜로드라마적 서사의 복잡화와 주인공의 성공담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가 시간여행 모티브의 판타지 효과를 성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주제 형성의 이데올로기적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실패한 판타지로서의 시간여행 모티브

판타지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구현되는 양식이다. 판타지 양식의 특징은 “이야기된 사건들에 대하여 자연적인 해석과 초자연적인 해석 사이에서”<sup>16)</sup>의 망설임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미메시스와 함께 작동하고 있는 표현 예술의 충동이나 시각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며,<sup>17)</sup> “지배적인 가설에 대한 위반을 통해 규범적으로 것으로 여겨지는 규칙이나 관습들을 전복”<sup>18)</sup>하는 상상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판타지 양식에 대한 이해가 어떻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경험될 수 없는 비현실적 현상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상력의 구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간여행의 판타지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반

16)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옮김, 『환상문학 서설』, 일월서각, 2013, 68면.

17) 캐스린 홈, 한창엽 옮김,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55면.

18)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24면.

성, 미래에 있을 두려움, 또 다른 기회에 대한 열망을 충족”<sup>19)</sup>시켜주고 “오락성, 과거에 대한 반성과 후회, 아련한 과거를 통한 현재의 치유, 현실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 두려움의 해방”<sup>20)</sup>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판타지는 하나만의 현실이 아니라 다양한 현실들을 구성하는 세계를 구현함으로써 현실을 복잡계(複雜界)의 세계로 인도하기도 한다.<sup>21)</sup>

시간여행의 방법에는 물리적인 기계를 이용한 타임머신과 초현실적인 현상을 이용한 타임슬립으로 나눌 수 있다.<sup>22)</sup> <미래의 선택>은 우선 첫 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드라마이다. 왜냐하면 미래(未來)에서 현재로 시간여행을 온 여인이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바꾸기 위해 타임머신을 탔기 때문이다.

“1세기 가까운 SF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도구는 물론 시간을 향해하는 기계-타임머신”<sup>23)</sup>이라는 점에서 이 드라마의 타임머신 모티브는 참신한 상상력이라 보기는 어렵다. H.G. 웰스가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쓴 이유는 “시간여행 그 자체의 현실성 논의보다는 암울한 미래를 묵시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계급모순의 골이 깊어가고 있음에도 각국

19) 이정환, 타임슬립 소재의 영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94면.

20) 박소은, 『‘소녀의 시간여행’의 일본문화적 의미』, 중앙대학교 일문과 석사학위 논문, 2014, 6면.

21)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대문자로 쓰여진 유아독존의 현실(The Reality)이 아니라, 어떤 개개의 현실(a reality)이 모여서 ‘현실들(realities)’을 구성하는 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현실들 사이’에 ‘환상들’이 자리를 잡기도 하고, 그 사이를 환상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통풍효과’를 낼 수도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현실은 이제 그 자체로 현란한 ‘복잡계(複雜界)’를 이룬다. ‘현실들의 복잡계’는 대문자의 현실이 세상의 변방으로 귀양 보냈던 환상의 요소들을 그 사이 사이에 다시 불러들여 ‘같이 놀자’고 하는 것이다.” 김용석, 『서사철학』, 휴머니스트, 2009, 467면.

22) 이정환, 앞의 글, 4면.

고장원, 앞의 책, 124면.

23) 김상훈, 시간여행 SF 약사(略史), 폴 앤더슨, 김상훈 옮김, 《타임페트플》, 행복환책읽기, 2008, 321면.

정부들끼리 전쟁만 일삼던 근대 유럽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sup>24)</sup>하기 위해 서였다. 타임머신 모티브의 서사 양식들은 근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 탄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선택>에서의 타임머신 모티브의 차용은 초창기의 타임머신 이야기의 사회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 드라마는 현실 사회의 기획이나 실천, 집단적인 행위 유발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타임머신 모티브의 이야기는 타임머신이라는 과학 기계를 이용하여 시간여행을 떠나는 주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타임머신을 이용한 시간여행은 “물리적인 개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통해 능동적으로 시간 여행<sup>25)</sup>을 감행하는 자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 주체는 타임머신을 발명한 과학자일 수도 있고, 그 과학자가 발명한 타임머신을 이용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타임머신 이야기는 과학 기술의 발명품으로서의 타임머신에 대한 설득과 믿음을 전제하고 있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현재의 변화와 맺는 관계를 묘사할 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의 선택>은 타임머신을 지나칠 정도로 영성하고 허술하게 묘사하고 있고, 어떤 계기로 타임머신을 이용하게 되었는지 또는 타임머신이라는 과학적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타임머신의 독특한 매력과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다. 여기에 ‘평행우주’라는 모티브를 겹쳐놓음으로써 타임머신 시간여행의 판타지적 효과는 결정적으로 소멸된다. ‘평행우주론’은 우주에는 동일한 세계가 수없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그 세계의 그 수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나’<sup>26)</sup>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평행우주(또

24) 고장원, 앞의 책, 124~125면.

25) 이정환, 앞의 글, 4면.

26) “다세계이론에 따르면 확률적 가능성은 모두 실재하고, 모두 일어난다. ... 나는 손오공처럼 수없이 자신을 복제하여 분열한다. 진짜 손오공은 어떤 것인가? 아니, 진짜 손오공이란 게 있는가? 우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 가족, 직장 등은 하나의 손오공에 관련된 세계다. 매순간 슬한 손오공과 그의 가족, 직장이 분열한다. 다세계

는 다중우주)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자.

임의의 관측이 행해질 때마다 양자적 분기점이 형성되면서 우주는 끊임없이 갈라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건이 발생하는 우주가 반드시 존재하며, 이 모든 우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만큼 현실적이다. 각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우주가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우주를 상상이나 허구의 세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평행우주들은 결코 환영이 아니며, 거기 속해 있는 모든 물체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물체들처럼 구체적이고 확고한 실체로 존재한다. ... 만일 다중우주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다른 우주에 다른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개중에는 당신이 사나운 공룡과 생존경쟁을 벌이는 우주도 있고 나치가 세계를 점령한 우주도 있으며 외계인과 동업해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우주, 심지어는 당신이 아예 태어나지 않은 우주도 있다.<sup>27)</sup>

**미래B** : 전에 내 발목에 왜 흉터가 안 생기는지 물었었지?<sup>28)</sup> 다이여리  
 관한 것도 정말 내가 돌아가면 바뀌어 있는 거야? 바른 대로  
 이야기 안 하면 다 찢어버릴 거야! (블랙맨의 메뉴얼 수첩을 찢  
 으려고 한다.)

**블랙맨** : 아, 알았어요.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미래의 사람이, 그러니까,  
 아줌마가 여기 와서 과거를 바꿔놓고 돌아가 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줌마가 여기 온 순간 또 하나의

는 손오공 주체를 낳는다.”

김용호, 『와우』, 박영출판사, 1996, 130~131면.

27) 마치오 카쿠, 박병철 옮김, 『평행우주』, 김영사, 2006, 271~272면.

28) <8회>에서 미래A는 ‘김신의 모닝쇼’ 특별 프로그램 중 흉가(凶家) 촬영에 나갔다가  
 논두렁에서 미끄러져 발목에 화상을 입는다. <13회>에서 미래B는 미래A의 발목에  
 난 화상 흉터를 보고 자신의 발목을 살펴본다. 그러나 미래B의 발목에는 상처의 흔  
 적이 없다. 시간여행 모티브 인과관계에 의하면, 미래A에게 상처가 나면 미래B의 몸  
 에 상처가 새로 생겨야만 한다.

미래가 생겼거든요. 아줌만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한 거라구요.  
(<14회>)

**미래B** : 그러니까 나랑 미래랑 다른 사람이고 내가 돌아가 봤자 바뀌는 게 하나도 없구. 이제 미래는 내가 아니라.

**나주현**(미래A의 오빠 : 인용자 주) : 잠깐, 잠깐, 그럼 혹시 이게 평행우주론

**미래B** : 응?

**나주현** : 잠깐만. (스마트폰을 꺼내 ‘평행우주’를 검색하며) 그럼, 이 이론대로라면 이 세상에는 단 하나만의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고 더불어 또 다른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니가 온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얘기네. (<15회>)

따라서 ‘평행우주론’에 근거한다면, 아무리 미래B가 미래A의 시대로 와서 개입한다 하더라도 미래B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그에 따라 <미래의 선택>에서 미래B는 시간여행자(Time Traveler)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의 서사적 주체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래의 선택>은 미래A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타임머신을 이용한 시간여행 모티브에 ‘평행우주론’ 모티브를 절충시킴으로써 현재의 미래A의 끊임없는 ‘선택’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된다.

타임머신을 이용한 시간여행을 통해서도 인생이 변경될 수 없다면 결국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과 결연한 실천으로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이 드라마에서 시간여행과 평행우주론이라는 판타지의 설정은 결국 현재의 미래A가 어떻게 현실의 장벽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된다.

**미래A** : 운명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전 이 세상에 참 많은 나미래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콜센터에서 주저앉은 나미래, 그러

다 오빠 중매로 대충 결혼한 나미래, 애 둘 낳아서 무언가 시도 하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나미래. 그래서 전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하고 싶은 직업 하나는 제가 직접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려구요. 제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누구 좋아하는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할려구요. (<10회>)

위의 대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래의 선택>의 시간여행 모티브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일탈하고자 하는 판타지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을 작동시키지 못한다. 그 대신에 이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다른 환상을 선사한다. 그것은 주인공 미래A가 ‘인생의 네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래(未來)로부터 온 미래B의 도움, 그리고 김신(이동건 분), 박세주, 오빠 나주현(오정세 분), 메인 작가인 배현아(이미도 분) 등의 도움을 받다가 결국에는 일체의 외부적 도움 없이 홀로 분투하여 성공한다는 서사를 통해, 누구나 미래A처럼 인생 역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환상이다.<sup>29)</sup> 타임머신과 평행우주와 같은 설정이 이 드라마의 판타지 도구라 한다면, 미래A의 인생 성공담은 이 드라마가 무의식 속에 감춰놓은 징후로서의 이데올로기적 환상으로 작동한다. 이때 징후로서의 환상은 사회적 모순의 상징적 해결의 목적에 봉사한다.

모든 것이 합리성의 틀 속에 정리되는 이 시대에 판타지의 귀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어쩌면 ‘위대한 리얼리즘의 승리’가 빛을 잃은 시대에 ‘총체성’의 환상을 심어주는 퇴행적 현상일지도 모른다. 현실 속에

29) 이안 앵은 “판타지에서 오는 즐거움은 실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위를 등장인물이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판타지 속에서는 등장인물이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전혀 다른 상황이나 정체 또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안 앵, 김선남 옮김,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정체성-텔레비전 픽션과 여성의 판타지』, 메리 엘렌 브라운 엮음, 『텔레비전과 여성문화-대중문화의 정치학』, 한울, 2002, 120면.

서 불안과 환멸이 깃누를수록 판타지는 매력적일 것이다. 무릇 문화란 프래드릭 제임슨의 말처럼 사회적 모순의 상징적 해결이 아닌가.<sup>30)</sup>

<미래의 선택>은 온전한 의미에서 타임머신 시간여행 모티브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작위적인 도구에 머물고 만다. 특히 평행우주라는 상황 설정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시간여행 이야기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 평행우주라는 모티브는 미래A에 대한 미래B의 간접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도구로만 사용되었다. 그것도 드라마가 거의 끝나가는 <14회>에서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는 <미래의 선택>이 채택하고 있는 시간여행과 평행우주라는 모티브가 지극히 작위적이고 기능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가 왜 굳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판타지 양식을 채용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볼 필요가 생긴다.<sup>31)</sup> 이 드라마에서 정작 시간여행의 주체인 미래B는 서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부차적인 인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이 드라마는 4명의 젊은이들이 펼치는 복잡한 멜로 라인을 전경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미래A의 인생 성공담을 전면화시키게 된다.

30) 윤진, 『호모 드라마쿠스』, 살림, 2008, 202~203면.

31) 이 드라마는 타임머신 시간여행 모티브와 평행우주 모티브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설정한 판타지 요소를 스스로 위반한다. 마지막 회인 <16회>에서, 자기가 살던 세계로 귀환하기 위해 타임머신 앞에 서 있는 미래B에게 미래A는 송별 인사를 나누면서 열쇠를 건네준다. 미래A는 자기 집 대문 옆에 ‘판도라의 상자’를 묻어둘 테니 미래(未來)로 돌아가면 열어보라고 한다. 이 드라마의 엔딩신에서 한 여인(분명 미래B가 확실해 보이는)이 마당을 파서 상자를 연다. 그 여인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미래A의 사진과 그녀의 아들로 보이는 어린아이와 청년의 사진들을 들여다본다. 이 설정은 이 드라마의 평행우주론과 전면적으로 모순된다. 왜냐하면 미래A가 상자를 마당에 묻었다고 해서 미래B가 그 상자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래A와 미래B는 시간의 인과율 법칙이 통하지 않는 다중우주 속에 존재하는 다른 두 세계의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의 선택>이 매우 안이하고 허술한 방식으로 판타지 양식을 사용한 증거가 된다.

### 3. 멜로드라마 서사와 인생 성장담

미래B가 현재로 시간여행을 오지 않았다면, 미래A는 김신과, 서유경(한채아 분)은 박세주(정용화 분)와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이어갔을 것이다. 미래B의 경험에 의하면, 이 두 쌍의 부부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는 못했다. 특히 미래B와 김신B<sup>32)</sup>의 결혼 생활은 지옥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미래B가 미래A 앞에 등장함으로써 예정되어 있던 이 두 쌍의 인생이 뒤틀려버린다. 원래의 운명대로라면, 광복절 전날 미래A와 김신은 강변북로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계기로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날 제주도 별장으로 휴가를 떠난 박세주는 그곳에서 ‘물’과 관련된 인연 때문에 서유경을 만나고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 결혼하게 된다. 시간여행자 미래B는 이 예정된 네 명의 운명을 뒤바꾼다.

미래A는 강변북로에서 운전하다가 절대로 성산대교 방향으로 꺾지 말라고 경고한 미래B의 말이 기억나서 차선을 바꿀까 말까 주저할 때, 김신이 미래A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뒤에서 박는다. 그 차에는 서유경이 타고 있었다. 미래B의 충고 덕분에 미래A는 김신과의 악연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미래B는 미래A에게 ‘홈전자 콜센터 수련회 장기자랑’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미래B의 권고대로 한 미래A는 진짜로 1등을 하여 제주도 리조트 여행권을 획득한다. 제주도로 간 미래A는 박세주와의 인연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유경·박세주’ 커플은 ‘서유경·김신’과 ‘나미래·박세주’의 짝으로 뒤집어진다. 결국 <미래의 선택>은 미래B의 시간여행을 통해 4각 관계라는 복잡한 멜로 라인을 형성하게 된다.

<미래의 선택>은 서사의 많은 부분을 이 네 명이 서로 사랑을 쟁취하

32) 여기에서 김신B로 표기한 이유는, 미래B가 결혼했던 남자는 미래A의 세계가 아니라 미래B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신B는 미래A가 만나고 있는 김신과는 다른 사람이다.

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미래B의 인생 경험에 의한다면, 만약 미래A가 김신과 결혼할 경우 불행하게 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A는 박세주보다는 김신에게 더 마음이 끌린다. 두 명의 남자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는 미래A의 이런 행동은 이 드라마의 멜로 서사를 지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두 남자 사이에서 방황하는 미래A의 행동은 소위 ‘돈이나, 사랑이나’와 같은 신파적인 내적 갈등 양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래의 선택>은 미래A가 좋은 조건이 보장되어 있는 재벌 3세 박세주와,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이 분명한 남자 김신 중 어떤 남자를 선택하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sup>33)</sup>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A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가 점점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한다는 희망의 서사 전략이다.<sup>34)</sup> <미래의 선택>에서 미래A는

33) 마지막 회 뒷부분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한 미래A는 자신의 신간 서적 『미래의 선택』을 사기 위해 대형 서점을 들른다. 같은 시간에 김신과 박세주도 그녀의 책을 구입하기 위해 그 서점에 온다. 그러나 화면은 이 세 명이 각자를 못 본 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장면은 서점을 나오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시 서점 안으로 들어온 미래A가 반가운 누군가를 만난 듯이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으로 끝난다. 이 드라마는 미래A가 김신과 박세주 중 누구를 만난 것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34) 박은하에 의하면, “1990년대의 신데렐라들은 남자에게 순종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없이 착했다면, 2004년의 그녀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좀 더 당당해졌고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당당함을 넘어서서 노골적으로 실리를 따지고 악바리 정신으로 무장”한 여주인공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영숙은 이와 다른 주장을 한다. 즉 1990년대의 작품들인 <사랑을 그대 품 안에>(MBC, 1994), <별은 내 가슴에>(MBC, 1997), <토마토>(SBS, 1999)에서부터 “신데렐라라는 투명하고, 솔직하며, 씩씩하다. 순종적인 멜로물의 여인상을 탈피, 남자 주인공에게 의존적이지 않으며 권위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시련과 고난에 직면해서도 체념과 절망 대신 일단 적극적으로 부딪혀 본다. ... 이들은 남자의 여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개인으로 설정되었다. 사랑과 일은 병행된다. ... 남자는 기다리고, 여자는 일에서의 성취를 위해 사랑을 보류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선택>에서 미래A는 1990년대 이후의 소위 ‘신데렐라’ 드라마들에 등장하는 소신 있고, 당당하고, 노력하는 여주인공들의 캐릭터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선택>은 기존의 소위 ‘신데렐라’ 드라마에 시간여행이라는 판타지 양식을 가미한 드라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은하, 21세기 tv드라마의 신데렐라 양상 연구-<시크릿 가든>과 <청담동 엘리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9~21면.

남영숙, 「TV 신데렐라 드라마 장르 연구 :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주요 화제작을 중

자율적이고 개인적인 여성 주체로 재현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선택>이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래A의 성공 스토리는 미래B의 등장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미래A의 인생은 미래B의 도래(渡來)에 의해 탄생한 것일 수도 있다. 주체와 과거 사이에 대한 지젝의 주장을 살펴보자.

주체는 그가 변화시키고 개입하길 원했던 과거의 한 장면과 마주친다. 그는 과거로의 여행을 감행하고 과거의 장면 속으로 뛰어들다. 물론 이는 그가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이다. 오직 그의 개입을 통해서만 과거의 장면이 항상 존재하고 있던 바가 된다는 것이다. 그의 개입은 처음부터 그 과거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sup>35)</sup>

지젝의 말에 기댄다면, 미래A의 세계는 미래B의 개입에 의해 존재할 수 있었던 세계, 즉 미래A의 세계 속에는 미래B의 세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미래B의 도래(渡來)에 의해 미래A의 세계가 발생한 것이라면, 미래A의 현재에는 항상 그녀의 미래(未來)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 미래A의 삶은 끊임없는 도래자의 개입에 의해 탄생한다는 것, 즉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미래(未來)의 자아와 함께 미래A의 현재가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래B는 미래(未來)로부터 현재로 도래한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A의 현재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곧 미래A의 자기 주도적인 성공 서사가 항상 자신의 내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자기 자신의 의지, 즉 미래(未來)에 대한 자기 비전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미래A는 어느 날 갑자기 미래(未來)에서 도래한 미래B를 만난 것이 아니라, 미래A 본인은 미처 자각하지

침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35면.

35)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송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107면.

못했지만 이미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또 다른 자아인 미래B를 발견한 셈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16회>에서 김신이 35년 뒤의 미래(未來)에서 온 늙은 김신C<sup>36</sup>와 만나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YBS에서 NTN의 메인 앵커로 자리를 옮긴 김신은 태극그룹의 가슴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보도해 달라는 NTN 사회부 기자들의 요청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김신이 그 사건을 보도한다면 NTN과 김신의 계약서 내용 중 하나인 “사측이 동의하지 않는 사건이 섞인 발언을 위반할 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걸리게 되고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신C는 자신이 뉴스 앵커, 보도 국장, 보도 본부장, 장관까지 거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자기 인생이 후회된다고 말한 뒤 증발하듯이 사라진다. 이 장면은 김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未來)에서 온 늙은 김신을 만났다고 보기보다는 김신의 내면적 독백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

어쨌든 미래A는 미래B와의 대면을 통해 혁명적인 자기 변혁의 계기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미래B가 가르쳐 준대로 ‘홈전자 콜센터 수련회 장기자랑’에서 1등을 차지한 미래A는 미래B와 함께 제주도도 여행을 떠난다. 홈전자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는 미래A에게 미래B는 심할 정도로 모욕을 준다.

- 미래B : 정말 너 행복해?
- 미래A : 그렇다구. 아줌마 나타나기 전까진 아무런 문제 없었대구.
- 미래B : <붉은 노을> 같은 거 하루 수십 번 불러주는 것도 행복해?
- 미래A : 고객인데 뭘 어떻게 해. 뭐 생각하기 나름 아니야?

36) 여기에서 김신B라 하지 않고 김신C라 표기한 이유는, 미래(未來)에서 온 늙은 김신은 미래B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오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드라마에서는 최소한 세 개의 다중우주가 선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A와 김신의 우주, 미래B의 우주, 그리고 김신C의 우주가 그것이다.

- 미래B : 엄마 아빠 흥 듣는 것도, 하루 한번씩 화장실 가서 평평 우는 것도 너무 행복해서 그러는 거야?
- 미래A : 나도 가끔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는 거니까. 난 괜찮아.
- 미래B :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너만 뒤쳐진 것도 행복하구?
- 미래A : 상관없어. 어차피 비교해봤자 나만 ...
- 미래B : 회사에서 만들어 주지도 않는 명함 직접 파서 난 홈전자라고 자랑할 때도 행복해?
- 미래A : 그게 뭐 어때서?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냐?
- 미래B : 몇 년 뒤 찢릴 것 뻔한 데도 백수 돼서 오빠한테 얹혀살아도 계속 행복하겠구나. 갖은 구박 다 받으면서 방구석에서 뒹굴다 독거노인 돼도? 몇 달 뒤 구더기 끓는 시체로 발견돼도 참 행복하겠다. 그치?
- 미래A : (눈물 글썽이며) 그럼 나보고 어찌라구? 내 친구들 다 잘 나가는데 나만 거지인데. 나이만 처먹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난 괜찮다, 정말 행복하다, 최면이라도 걸어야 살지. 나 지금까지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구. 살아볼려구, 버틸려구.
- 미래B : 아냐. 넌 그냥 도망친 거야 ... 살아봐? 버텨? 그럼 진짜 노력을 했어야지. 넌 그냥 멍갯잖아. 아까도 봐. 몇 시간만 고민 좀 해 보라는데 넌 그냥 도망쳐서 놀았잖아.
- 미래A :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는다.) 근데, 아줌마. 난 사실 자신이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앞서 나가는데 뒤따라갈 자신이 없다구. 새로운 거, 다른 거, 난 용기가 안 나. 겁부터 나.
- 미래B : 그럼, 포기하자 우리. 나두 너라면 훨씬 젊으니까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지금 보니까 너 나보다 훨씬 늙었다. 자신도 없구, 가능성도 없구, 뭉개고만 싶고. 평생 그럴 거 오빠한테 짐만 될 텐데 뭐 하러 사니? ... 넌 그냥 조용히 나가 죽어. (<1회>)



미래A는 미래B의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듣고 좌절해서 리조트를 빠져 나와 밤 바닷가로 간다. 그녀는 다짐한 듯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바닷물 속으로 몸을 던진다. 바닷물 속에는 아름다운 색상의 물고기들이 수영(游泳)하고 있고, 미래A는 그 물고기들과 함께 즐기는 듯이 수영을 한다. 옷을 모두 벗고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미래A의 행동은 그녀가 이제부터는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음을 상징한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 졸도한 미래A를 박세주가 구해주고, 미래A가 깨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사라진다. 숙소로 돌아온 미래A는 기다리고 있던 미래B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래A** : 아줌마. 나 물고기 봤어. 그 쪼끄만한 것들도 살겠다고 꼬물꼬물 거리는데 갑자기 한심해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놀았어 개네들이랑 같이. 완전히 발가벗고 나니까, 바닥을 치니까, 이젠 할 수 있을 거 같애, 뭐라도. (미래B의 손을 쥐며) 잘해 볼게. 그러니까 아줌마, 나 포기하지 마. (<1회>)

바닷가가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이듯이, 바닷물 속에서의 미래A의 수영은 인생의 경계선을 건너서고자 함을 의미한다. 제주도에서 돌아오자마자 미래A는 홈전자 콜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방송작가가 되기 위해 온 몸을 던진다.

학벌도 좋지 않고 나이도 32살이나 먹은 노처녀가 방송작가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드라마는 결국 미래A와 김신이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게 함으로써 그 질진 악연을 다시 이어준다. 김신은 미래A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요구하고, 미래A는 김신의 자동차 면허증의 갱신 기간이 지났으므로 무면허 운전이라고 맞서면서 김신의 요구를 거부한다. 김신은 수리비를 받기 위해 미래A를 자기 근처에 두려고 방송국 수습작가로 채용한다. 이때부터 미래A의 수난기와 역경 극복담이 펼쳐지게 된다. 미

래A는 김신, 오빠, 배현아 작가 등 YBS ‘김신 모닝쇼’ 스태프들의 반대 때문에 수습작가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미래A의 성실성과 노력 덕분에 서서히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방송 작가로서 성장한다. 그러다가 미래A는 방송국에 사표를 던지고 외주 프로덕션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모든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자립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未來)는 미래A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욕망뿐이다.<sup>37)</sup> 마지막 회에서, 김신과 만난 미래A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김신과 헤어진다.

**미래** :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미래. 아직 미 올 래. 아직 오지 않은 거, 미래를 생각하면서 왜 현재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이제 안 그럴래요. (<16회>)

미래A와 김신은 대화를 마친 후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간다. 이는 미래A가 홀로 서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리고 장면은 갑자기 “3년 후”라는 자막과 함께 “YBS 서유경의 피플 줌인”이라는 팸플릿이 붙어있는 방송국 촬영장 장면으로 전환된다. 미래A는 가장 유명한 방송작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하고, 김신은 YBS 방송국에서 NTN 방송국으로 이직한 후 그곳에서 퇴출당하고 독립 인터넷 방송 앵커로 변신한다. 그리고 각종 방송국의 리포터로서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서유경은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자신의 이름을 내건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성공한다. 마지막으로 박세주

37) “대부분의 싸움은 시간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을 동반한다. 싸움의 당사자들은 과거나 미래를 현재의 이익에 맞게 변경하거나 조정하면서 ‘보릿밭 미래’를 제시한다. 과거나 미래를 통제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다. 그들이 통제하는 것은 현재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현재의 욕망뿐이다. 역사 자체, 전통 자체, 과거나 미래 자체는 없다.”

김용호, 앞의 책, 140~141면.

는 YBS 방송국의 상무 자리와 영건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원래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 위해 외국 유학을 다녀온다. 결국 주요 인물 4명은 각자 홀로서기에 성공함으로써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미래의 선택>은 3년 동안에 미래A가 어떤 과정과 노력을 통해 성공한 여성으로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 이 성공담의 실체는 온전히 시청자의 상상력에만 기대게 된다.

여기에서 특히 미래A의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녀는 ‘인생의 네비게이터’인 미래B의 도움과 충고에도 불구하고 미래B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성공한 인물이다. 미래A는 이제 더 이상 콜센터 상담 센터에서 질 나쁜 고객 때문에 번번이 <붉은 노을>을 불러주어야만 하는 구차한 비정규직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방송작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우뚝 서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만으로 개척한 이 시대의 성공 케이스이다.

#### 4. 개인의 선택과 자기계발 프로젝트

<미래의 선택>이 단순한 시간여행 서사였다면, 이른바 ‘시간 패러독스’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시간 패러독스’의 “가장 기본적인 플롯은 시간여행자의 간섭에 의해 인과율의 고리가 형성”<sup>38)</sup>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未來)에서 현재로 미래B가 되돌아와서 현재 사건에 개입하면 할수록 미래(未來) 상황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평행우주 이론을 개입시키면서 시간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시간 패러독스’를 피해나간다.

따라서 이 드라마는 일반적인 시간여행 모티브의 서사 전략과는 거리

가 멀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주도적인 선택만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의 선택>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행복과 평화의 조건이 국가나 사회의 개혁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선택>이 평행우주 이론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시간여행 모티브만을 사용했다라면, 이 드라마의 기본적인 취지와 주제의식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드라마에 의하면,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과거로 시간여행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타임머신의 효용가치는 증발해버린다. 여기에서 이 드라마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인생은 타임머신 같은 도구를 통해 과거로 돌아감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개인적인 ‘선택’과 ‘노력’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한가지의 방법밖에는 없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현재의 자기가 직접 바뀌는 일이다. 현재의 미래A가 스스로 바뀌는 것,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한 길이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를 살펴보자.

#### <기획의도>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관 뒤야 하나,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잘 살 수 있나, 이 남자를 내가 좋아해도 될까 등등. 인생은 모든 선택 속에 이루어지고 각각의 인생은 그 선택에 의해 갈려 나간다.

매일이 선택의 연속인 이 인생에서 만약 미래의 누군가가 나타나 나

38) 김상훈, 앞의 글, 333면.

대신 결정을 내려주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해주는 네비게이터가 있다면? ... 이 드라마는 이런 발칙한 상상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여기, 그런 꿈같은 일을 겪게 된 흔하디흔한 서른 두 살의 여자가 있다. 당장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해나가느라 꿈도, 인생의 의미도 놓치고 살던 그녀 앞에 미래의 자신이라고 우기며 한 아줌마가 나타난다. ‘잘못될 앞으로의 선택을 바로 잡아 네 인생을 바꿔주겠다.’고 말하는 미래의 나.

과연 이 여자는 현재 자신의 선택을 믿을까, 아니면 미래에서 온 자신의 선택을 믿을까?

현재의 나 VS 미래의 나.

하나의 인생을 두고 두 사람이 벌이는 한판 인생 성공기!

그리고, 그 여자처럼 인생의 선택이라는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는 그대들에게도 물어본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인생이 주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sup>39)</sup>

위의 기획의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해주는 네비게이터”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드라마는 현재의 젊은 미래A가 미래(未來)에서(정확하게는 평행우주의 미래(未來)에서) 온 미래B의 온갖 설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현재의 비루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신을 계발함으로써 성공한다는 결말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자기계발 이데올로기’를 전달한다. 이 드라마는 미래A의 자율적인 선택과 성공담을 통해, 이 시대에서 살아남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자기경영’ 또는 ‘자기계발’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 드라마에서 미래B와 김신C의 존재를 제외하기만 한다면 극히 현실적인 드라마로 보인다. 영화 <백 투더 퓨처>, <터미네이터>, 드라마

39) KBS, <미래의 선택> 홈페이지.

([http://www.kbs.co.kr/end\\_program/drama/mirae/about/plan/index.html](http://www.kbs.co.kr/end_program/drama/mirae/about/plan/index.html))

<나인> 등은 타임슬립이나 타임머신을 통해 현실(또는 미래(未來))을 바꾼다. 그러나 <미래의 선택>에서는 그러한 시간여행의 환상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이 드라마는 2013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나미래’들에게 어느 정도 현실감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비춰진다. 시간여행으로 미래(未來)에서 현재로 온 ‘나’의 도움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개인적인 선택’만이라는 것 등에 대한 감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반적인 시간여행 서사보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드라마의 은밀한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것은 ‘자기계발 이데올로기’의 주체 형성 효과이다. 언뜻 보면 이 드라마가 여성의 자기 주체성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간주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인공 미래A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여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미래A의 성장 서사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버텨내고 있는 시청자들이 느끼는 현실과 미래(未來)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현재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풍경과 자기계발 시대의 굴절된 사회적 무의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 먼저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 형성 양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설명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사회는 1990년대 초에 들어와 OECD, WTO 가입을 준비하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에 동참하고자 사회구조를 신자유주의적 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습속과 주체성을 지닌 노동하는 주체를 대거 양성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다. 새로운 주체성 형성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를 그 무렵 노동자 주체를 ‘자기 계발하는 주체’로 전환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난 데서 확인할 수 있다.<sup>40)</sup>

신자유주의는 단지 사변적인 이론체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불행하

40)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2014, 441~442면.

제도 그 사변이 국가, 사회, 기업 등의 우리 현실을 자조적(自助的) 세상으로 주조하고, 우리 자아를 자기계발적 양태로 재구성했다. ... 자기계발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정책을 명확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계발의 문화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면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sup>41)</sup>

이른바 신자유주의 체제란 “사회적 비용마저도 모조리 사적인 비용으로 돌려버려, 즉 경쟁과 성공과 실패를 모두 ‘1인 기업’화된 개인의 역량에 맡김으로써 더욱 큰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sup>42)</sup>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1인 기업’화된 개인은 자기 자신을 부단히 계발함으로써만 무한경쟁 체제 사회에서 살아남아 성공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기에서 ‘자기 계발’의 주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계발하는 국민이라는 국민주체의 주체성은 ‘국민 만들기’와 ‘행복한 자기(self)가 되기’를 결합한다. 아니 그것은 두 개의 분리된 연표로 표상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개의 분리된 실체는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행복한 자기’를 만들기 위한 개인적 주체의 자기와의 관계일 뿐이며, “스스로 책임지고(self-responsible), 스스로 독립해 있으며(self-reliant), 스스로를 존중하는(self-respectful)” 국민,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장 안에 존재하는 주체이다.<sup>43)</sup>

**미래A** : 나 짤릴 거, 구조조정 어떻게 알았어?

**미래B** : 다이어리. 병원 입원했을 때 김신한테 들은 거. 내가 써놓았더라고.

41) 이원석, 『거대한 사기극-자기계발서 권하는 사회의 허와 실』, 북바이북, 2013, 124면.

42) 문강형준,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이매진, 2012, 25면.

43)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 122면.

**미래A** : 그래서, 다 짤린대?

**미래B** : 응...그러니까 미래야. 이제 작가 일은 포기하고

**미래A** : 남은 날자는 채워야지.

**미래B** : 하아. 날자는 무슨? 어차피 방송맛은 봤잖아. 그러니까.

**미래A** : 너 맛만 보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재료 구해서 요리하고 맛있게 상까지 차리려고 들어온 거라구. 그리고 나 딱 데 가서 또 시작할 거야. 바보 취급 안 당하려면 하나라도 더 배워서 가야지.

**미래B** : 아니, 왜 박세주가 있는데. 어차피 개만 잡으면 니가 하고 싶은 거 몽땅 다

**미래A** : 평생 남자한테 기대서 살라고? 그래서 아줌마 이 꼴 난 거 아니야?

**미래B** : (정색하는 여인) 이 꼴이라니? 내가 뭐?

**미래A** : 김신이랑 결혼한 것두 아나운서니까 더 혹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이랑 빌붙어가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아냐?

**미래B** : ... 너두 그렇잖아. 김신한테 자꾸 신경 쓰이는 거. 프로그램 원 엠씨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니까.

**미래A** : 아니, 난 아냐. 김신이든 박세주든 남자한테 기대지 않고 내 자신부터 당당하게 세우고 싶단구. (일어서서 떠난다.) (<4회>)

**미래A** : 오빠. 나 외주사 갈 거야.

**오빠** : 야. 너 거기 가면 공중과 편성 그거 쉽지 않은 거 알아?

**미래A** : 나도 알아. 근데 나 여기 있으면 나미래가 아니라 나주현 동생, 박세주 여자 친구로만 보잖아.

**오빠** : 그게 그렇게 힘들어?

**미래A** : 조금 힘들긴 한데 그것보다 오빠랑 세주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힘들 때마다 오빠랑 세주씨한테 기대고 의지하게 되는 것도 싫단 말야.

**오빠** :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냥 혼자 한 번 일해 보겠다?

**미래A** : 응. 새로운 데 가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시작해 볼려구.

**오빠** : 다 정해 놓고 그걸 왜 나한테 얘길 하나? 니가 하든가 말든가.

**미래A** : 열심히 할게. (<15회>)

위의 두 대사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A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자조(自助)의 주체, 즉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셀프 헬프(self-help)의 주체, 자기 계발적 주체이다. 그러나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이러한 주체는 ‘자기-주인’임과 동시에 ‘자기-노예’가 되는 주체이다. 이는 곧 “자기 계발의 이데올로기가 삶의 가치가 된 신자유주의 사회”의 주체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sup>44)</sup>

미래A는 명실공히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셀프 헬프(self-help)’의 화신이다. 그녀는 외부적인 도움이나 지원 없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주체이다.<sup>45)</sup> 그런 의미에서 미래A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존재, 그리고 자유를 획득한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제공하는 자유는 우리를 모든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버린다. 곧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않을 자유를 우리에게 제공”<sup>46)</sup> 할 뿐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의 주체 형태는 “국가나 자본이 바라는 인간 형태라는 것, 그가 자유로운 만큼이나 자본과 국가의 변증법에 포획”<sup>47)</sup>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새로운 주체형성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막 가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외환위

44) 문강형준, 『과국의 지형학』, 자음과 모음, 2011, 46면.

45) “전체 인간 중의 집단적인 자질이자 자산인 인간의 이성으로 수행해야 할 일로 여겨졌던 것들이 개인 차원의 과감성과 정력에 맡겨져 분해(‘개별화’)되고 개인적 관리와 개인적 재능과 수완의 집행 영역에 남겨졌다.”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옮김, 『액체근대』, 도서출판 강, 2010, 49면.

46) 이원석, 앞의 책, 24면.

47) 강내희, 앞의 책, 443면.

기와 IMF 긴축경제 과정에서 일어난 ‘5.31 교육개혁’과 ‘신지식인운동’을 통해 호명된 주체형태가 ‘자율적 선택자’, ‘자기책임의 구현자’였던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작동 결과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사회적’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사회’ 대신 ‘개인’을 책임의 소재로 만드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다.<sup>48)</sup>

그런데 주체화가 왜 문제인가? 자기경영·자기혁신·자기계발·자기배려는 주어진 권력체계에 적합한 역량의 강화-간단히 말해 ‘자본가 되기’를 선동함으로써 체제에의 예속을 심화시킨다. 실제로는 유연 노동을 수행하는 행위자가 자본가의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경영할 때, 자발적 예속의 신자유주의적 판본이 완성된다.<sup>49)</sup>

이런 의미에서 <미래의 선택>에서 YBS의 ‘김신의 모닝쇼’ 팀이 보도했던 사건들 중에서, 문방구 할아버지의 기부 선행(善行), 지하철 방화사건, 가짜 양주 제조 현장 등의 취재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존재가 녹아 흘러버린 현실을 말해준다. 허름한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복지의 의무가 개인의 선행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B가 지하철 방화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해들은 ‘김신의 모닝쇼’ 팀은 취재에 나선다. 미래A는 경찰서에 찾아가 앞으로 일어날 대 참사를 이야기해주며 대처해 주기를 요청하지만, 경찰관은 미래A를 술주정하는 여자로 간주하고 되돌려 보낸다. 취재진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하철의 스프링클러 시설을 점검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결국 지하철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한다. 모 술집에서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미

48) 강내희, 위의 책, 452면.

49) 이창우,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의 정치학」,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239면.

래A는 경찰의 도움 없이 혼자 그 술집에 위장 취업하여 가짜 양주 제조 과정을 몰래 카메라로 찍는다. 이 일련의 에피소드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개인에게 전가된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개인들은 국가의 개입에서 벗어난 자유를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지 않을 자유도 가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시대는 “개인화되고 사적으로 변한 근대, 유형을 짜야 하는 부담과 실패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개인의 어깨 위에 떨어지는 시대”<sup>50)</sup>인 것이다.

따라서 미래A의 자기 주체적, 자율적, 개인적인 성공담은 액면 그대로 동경의 대상이 되기 어렵게 된다. ‘자기 계발 이데올로기’는 국가가 책임져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선택>은 자기-착취의 시스템을 개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잔인함을 괄호 속에 넣어버리고, 그 대신에 미래A의 개인적인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서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만 해야 하는 것은 “판타지이든 그 어떤 상상력이든 그것이 현실적인 것과의 균형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순간 그것은 단지 미학의 소비 혹은 상상의 과소비 차원으로 전락”<sup>51)</sup>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선택>은 달동네에 있는 서유경의 누추한 집과 다리를 못 쓰는 그녀의 어머니를 잠깐 동안 보여주고, NTN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기업과 유착한 방송국의 비리를 비판하기 위한 집단 농성 장면도 짧게 보여준다. 그리고 YBS 방송국의 이미란 회장(고두심 분)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집단적 퇴출을 시도하는 장면도 나온다. 그러나 <미래의 선택>은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단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소재로만 사용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50)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16면.

51) 이성욱, 『20세기 문화이미지』, 문화과학사, 2004, 100면.

3년 후, 4명의 주인공들이 각자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드라마는 결말을 삼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어렵게 생활해야 하는 많은 ‘서유경’들과 콜센터 상담원 ‘미래A’들에 대해, NTN에서 방송국의 비리에 항의하는 집단 데모를 주도했던 기자들의 미래(未來)에 대해, 박세주가 상무 직위를 내던지고 홀로 외국 유학을 떠난 후, YBS는 이미란 회장의 폭력적인 구조조정과 집단퇴출 계획에서 자유로워졌는지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드라마의 관심은 4명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각자가 자조(自助)의 주체, 자기 계발의 주체가 되어 성공하게 되는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sup>52)</sup> <미래의 선택>은 타임머신을 이용한 시간여행이라는 판타지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여행 판타지의 효과와 매력을 상실해 버린다. 결국 타임머신 시간여행 모티브와 평행우주론을 작위적이고 허술하게 적용한 <미래의 선택>은 실패한 판타지 드라마의 예로서 기억될 것이다. 시간여행의 판타지라는 외피를 벗기고 나면 <미래의 선택>은 네 젊은이들, 특히 미래A를 중심으로 현재의 선택에 의한 셀프 헬프(self-help)의 주체형성 및 자기계발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드라마로 귀결되고 만다.

## 5. 맺음말

2012~2013년에 적지 않은 시간여행 드라마들이 방영되었다. 이 시기의

52) “신자유주의적 경제주체들은 행동을 함께할 수 있는 ‘우리’를 형성하지 못한다. 사회가 점차 원자화되고 자기중심주의가 강화되어감에 따라 행동을 함께할 수 있는 여지는 급격히 축소되며, 이로써 자본주의 질서를 정말로 위협할 수 있는 반대 세력의 형성도 어려워진다. 공동체(socius)는 단독자(solus)에 밀려난다. 다중(Multitude)이 아니라 고독(Solitude)이 오늘의 사회 상황을 특징짓는다.”  
한병철, 김태환 옮김,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134면.

거의 모든 작품들이 타임슬립 드라마였다는 점에서 타임머신 시간여행을 모티브로 활용한 <미래의 선택>은 눈에 띈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에서 타임머신을 이용한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는 것은 매우 생소하고 희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드라마 <미래의 선택>가 타임머신 시간여행이라는 판타지 양식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타지 드라마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타임머신을 이용한 시간여행 이야기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사건이나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판타지 양식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는 판타지 양식은 과거(또는 미래)로 여행을 가서 시간여행자의 인생이나 세계(또는 역사)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다룬다. 특히 타임머신 시간여행 이야기는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역전시키거나, 미래로 여행을 떠나는 체험을 통해 현재의 문명과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양식은 타임머신이라는 과학적 발명품과 그것이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설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미래의 선택>은 타임머신 시간여행과 평행우주론을 겹쳐놓음으로써 시간여행 이야기 특유의 환상성에 대한 매력과 흥미를 선사하지 못한다. 이는 <미래의 선택>이 타임머신 시간여행과 평행우주론을 지극히 작위적이고 기능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시간여행의 주체인 미래B는 과거로 와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지 못할뿐더러, 주인공 미래A의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하는 보조적 인물로 한정되었다. 이는 이 드라마에서 시간여행 모티브가 미래A를 포함한 네 젊은이들의 멜로 라인을 만들어주고, 미래A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형성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네 명의 젊은이들이 벌이는 짝짓기 싸움이나 미래A의 성공담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정작 시간여행의 주체인 미래B의 서사는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 게다가 드라마의 후반 부분에서 갑자기 평행우주가

밝혀지면서 시간여행 이야기에게 걸었던 기대감과 호기심은 급격하게 허무감으로 변한다. 여기에 시간여행과 평행우주론이 지극히 허술하고 개연성 없이 적용됨으로써 판타지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만다.

그렇다면 <미래의 선택>은 왜 시간여행과 평행우주론이라는 판타지 도구를 사용한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판타지 도구가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활용되지 않았다면 이 드라마의 궁극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미래의 선택>은 미래(未來)에 대한 어떤 비전도 의지도 없는 비정규직 콜센터 상담원 미래A가 어떻게 성공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미래A는 미래B의 설득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재벌 3세인 박세주와의 결혼을 미룬다. 그 대신에 미래A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길을 선택한다. 미래A는 부단한 자기 경영과 자기 계발을 통해 인생 역전을 보여주는 성공 케이스의 모델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A의 자기-계발 서사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 형성 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자기 계발이라는 서사는 국가가 액체처럼 녹아 흘러내린 상태, 즉 국민 모두를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듦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결과물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셀프헬프(self-help), 자조(自助), 자기 계발이라는 담론을 통해 개인의 능력에 대한 근거 없는 긍정론과 낙관주의를 주입시킨다.

<미래의 선택>은 허술하고 작위적인 시간여행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실패한 판타지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시간여행의 판타지가 선사하는 쾌락과 흥미와 매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따라서 어설프게 사용된 판타지 양식을 건어내 버리면 <미래의 선택>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인 자기 계발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미래의 선택>, 홍진아 극본, 유종선 연출, KBS2, 총 16부작, 2013.10.14~2013.12.3.

2. 단행본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2014.  
 고장원, 『SF로 광고도 만드나요?』, 들녘, 2003.  
 김상훈, 『시간여행 SF 역사(略史)』, 폴 앤더슨, 김상훈 옮김, 《타임팩트를》, 행복한책읽기, 2008.  
 김용석, 『서사철학』, 휴머니스트, 2009.  
 김용호, 『와우』, 박영률출판사, 1996.  
 더글라스 켈너, 김수정 · 정중희 옮김, 『미디어 문화』, 새물결, 1997.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마치오 카쿠, 박병철 옮김, 『평행우주』, 김영사, 2006.  
 문강형준, 『과국의 지형학』, 자음과 모음, 2011.  
 문강형준,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이매진, 2012.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윤진, 『호모 드라마쿠스』, 살림, 2008.  
 이성욱, 『20세기 문화이미지』, 문화과학사, 2004.  
 이안 앵, 김선남 옮김,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정체성-텔레비전 픽션과 여성의 판타지』, 메리 엘렌 브라운 엮음, 『텔레비전과 여성문화-대중문화의 정치학』, 한울, 2002.  
 이원석, 『거대한 사기극-자기계발서 권하는 사회의 허와 실』, 북바이북, 2013.  
 조르조 아감벤 · 양창렬, 양창렬 옮김,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도서출판 난장, 2010.  
 존 피스크 · 존 하틀리, 이익성 · 이은호 옮김, 『TV 읽기』, 현대미학사, 1997.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옮김, 『액체근대』, 도서출판 강, 2010.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옮김, 『환상문학 서설』, 일월서각, 2013.  
 캐스린 흄, 한창엽 옮김,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한병철, 김태환 옮김,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3. 논문

남영숙, 「TV 신데렐라 드라마 장르 연구 :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주요 화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박소은, 「‘소녀의 시간여행’의 일본문화적 의미」, 중앙대학교 일문과 석사학위논문, 2014.  
 박은하, 「21세기 tv드라마의 신데렐라 양상 연구-<시크릿 가든>과 <청담동 엘리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서곡숙, 「시간여행 영화의 쾌락-시간, 죽음,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영상예술 연구』 제18호, 영상예술학회, 2011.  
 이정환, 「타임슬립 소재의 영상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이창우,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의 정치학」,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최영진 · 김민중, 「시간여행 영화의 비선형적 사유 : <도니 다코>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문학과 영상학회, 2010.



Abstract

The Study on the Motif of Time Machine/Time Travel and the Ideology of Self-Enrichment

- focussing on Television Drama <A Choice of Mi-rae>

Park Myeongjin

Time-traveling TV dramas which use 'time slip' phenomenon are intensively on air from 2012 to 2013. <A Choice of Mi-rae> is the drama in which time travel and the theory of parallel universe are adopted, using time machine. The drama is intriguing in that it executes the different strategy from other time slip dramas.

The narration of time travel by time machine attempts to satisfy the characters' desire for changing their unsatisfying reality through moving the present into the past. However, in this drama, the time traveller who goes back to the past does not change her life. Accordingly, the fantasy effect that the narration of time travel provides does not appear.

<A Choice of Mirae> is the drama representing the fantasy aspect of time travel by time machine. Nevertheless, the drama dose not realize it effectively not only because the drama uses the motif of time machine as extremely loose and deliberate but also because the time traveller who comes to the present from the future deviates from the main stream of the narration. Consequently, the present complicated romantic relationship of four young people and the growth story of the heroin become the center of the narration. It follows that in <A Choice of Mirae>, the self-directed choice, efforts and success of heroin Na mira are foregrounded. Even though the heroin seems to realize herself as independent and self-restraint, if the ideologic symptom included in the narration can be observed, another interpretation should be derived in the drama.

In this drama, the self-motivated success story of the heroin is related to the ideology of self-enrichment which operates the principle of the formation of the subject under neoliberalism.

Even though <A Choice of Mirae> is a fantasy genre using the motif of time travel, if the fantasy apparatus of time travel is deprived of, it is concluded that the drama is the one which has function to consolidate the governing ideology for maintaining neoliberalism.

Key words : <A Choice of Mirae>, Fantasy, Ideology of Self-Enrichment, Parallel Universes, Self-Help, System of NeoLiberalism, the Growth Story, Time Machine, Time Travel

접수일: 2015년 1월 31일  
심사기간: 2015년 2월 4일~2월 23일  
게재결정: 2015년 3월 12일